

나주시, 농기계 사고 알림 시스템으로 농민 보호 최선

사물인터넷 활용 사고 감지 알림
봉황면 죽석리 1개소서 시범 운영
전도·전복 사고시 자동 위치 전달
“읍면별 단위 사업 확대해 나갈 것”

나주시가 영농철 농기계 사고 예방을 위해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사고 감지 알림 시스템을 봉황면에 시범 도입해 운영한다.

나주시는 봉황면 죽석리에 트랙터, 경운기 등 농기계 38대에 단말기를 부착하고 전광판 1개소를 설치해 농기계 사고 감



나주시가 봉황면에 농기계 자동 알림 시스템 전광판 등을 시범운영하며 농기계 사고 예방에 나섰다.

나주시 제공

지 알림시스템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단말기가 부착된 농기계의

종류, 위치, 차량 간 거리를 실시간으로 전광판에 노출해 차량이나 보행자와의 교통사고를 사전 예방한다.

여기에 영농철에 빈번한 농기계 전도·전복 사고가 발생하면 가족 보호자와 119 응급지원센터(소방서)에 자동적으로 사고 위치를 실시간으로 전달해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다.

전남 지역 농기계 사고 동향을 살펴보면 4~6월 사이에 집중 발생되며 사고 원인으로서는 △노후된 농기계 사용 △운전미숙 △야간 작업 시 시야 확보 부족 △안전장치 미비 등이 꼽힌다.

사고 유형별로는 전복, 충돌, 낙상 끼임 사고 등이며 최근 3년간 2020년 63건, 2021년 74건, 2022년 67건 등 총

204건의 농기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나주시는 농기계 사고 예방법으로 철저한 사전 점검, 보호장비 착용, 정해진 속도 준수, 조명 반사판 부착, 보조자 동행 권장 등을 당부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영농철 농기계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영농 안전망을 봉황면 죽석리에 시범 구축했다”며 “시범사업 성과를 통해 농기계 사용이 많은 읍면 단위로 사업을 확대해가겠다”고 말했다.

나주=김용의 기자

내일 영산강 정원에 미꾸라지 6만4천마리 방사

수질 개선·해충 방제 위해

나주시가 ‘시민과 함께 만드는 영산강 정원’의 일환으로 수생태계 회복을 위한 미꾸라지 방사 행사를 갖는다.

나주시는 17일 오후 5시 영산강 정원 내 호소부와 웅덩이 일원(영산강정원길 47)에서 미꾸라지 6만4000여마리를 방사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미꾸라지 키우GO, 모기 잡GO, 자연 살리GO’라는 주제로 열리며 어린이와 시민 누구나 나주시 영산강르네상스추진단으로 우선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미꾸라지는 하천의 유기물 분해를 촉진하고 산소를 공급해 수질 개선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모기 유충인 장구벌레의 천

적으로 친환경 해충 방제 수단으로도 각광받고 있다.

시는 화학적 방제가 아닌 생물학적 친환경 방제를 통해 영산강 정원 수생태계 회복 계기를 마련하고 어린이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윤병태나주시장은 “미꾸라지 방류행사는 수질 개선, 해충 방제 효과뿐 아니라 시민의 참여를 통해 영산강 정원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방류하는 미꾸라지 6만4000여마리는 관내 농공단지 입주 업체인 아이비전(주) 이용희 대표의 기부를 통해 마련됐다.

나주=조대봉 기자



나주소방 직원이 최근 관내 호남원예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화재 대피 훈련을 시행했다.

나주시 제공

나주소방, 호남원예고등학교서 화재 대피 훈련

나주소방이 최근 관내 호남원예고등학교 기숙사에서 화재 대피 훈련을 실시했다.

15일 나주소방에 따르면 이번 훈련에는 학생과 교직원 등 120여명이 참석해 화재 발생 상황을 가정하고 신속한 대피

를 위한 실전 훈련을 진행했다.

훈련의 주요 내용으로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 요령 △소화기 사용법에 관한 실습 교육 △기숙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소방시설 유지 관리에 대한 교육 등이 포함됐다.

나주=김용의 기자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참여 단체 모집

18~45세 5인이상 청년 법인·단체

나주시는 지역 청년들의 활동 기반 마련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참여 단체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들이 교육, 창업,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사회와 연계한 행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과업 수행비 등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18세부터 45세 이하 5인 이상의 청년들로 구성된 법인, 단체 등으로 대표 및 구성원의 60% 이상이 나주시에 거주해야 한다.

시는 올해 5개 팀을 선정해 팀당 과업수

행비 600만원, 청년 공동체 간 교류·협력 행사비 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 단체는 시 누리집 공고문에 게시한 신청 서류를 작성해 오는 28일까지 나주시 청년센터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심사는 1차 서류평가와 2차 발표 평가로 진행한다. 신청요건 충족 여부, 활동 계획, 성과 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5월16일 최종 선정 결과를 누리집에 공지할 예정이다.

사업에 선정된 청년 단체는 매월 활동보고서를 시에 제출해야 하며 활동 우수 사례는 홍보콘텐츠 제작 지원을 받는다.

나주=김용의 기자

을 농번기 335개 마을 공동급식 운영

신청한 전체 마을 대상 지원키로

나주시는 올해 마을공동급식을 신청한 335개 전체 마을을 대상으로 급식비용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당초 올해 사업량은 마을 251곳이었으나 신청이 폭증하면서 마을 간 형평성과 농업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사업을 신청한 전체 마을을 대상으로 공동급식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사업비 7억3000만원을 투입해 15명 이상 공동급식이 가능한 마을에 농번기 중 연간 25일 이내 공동급식 비용을 지원한다.

자체 공동급식을 신청한 마을 177곳에 부식비와 도우미 인건비를 나머지 마을 158곳엔 도시락 및 반찬 배달 비용을 각각 지원할 예정이다.

자체공동급식의 경우 연간 지원 일수(24일)를 기준으로 급식 인원에 따라 마을 한 곳에 최대 232만8000원을 지원한다.

도시락 배달은 연간 19일을 지원하는 대신 지난해부터 끼니 당 도시락 단가를 5500원으로 상향해 지원하고 있으며 급식 인원에 따라 마을 한 곳에 최대 209만원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나주=김용의 기자

30억 들여 옛 실내체육관 개보수

장애인과 비장애인, 나주시민 모두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통합체육시설인 ‘나주시 반다비 체육센터’가 문을 열었다.

나주시는 지난 11일 옛 실내체육관 전면 보수공사를 통해 재탄생한 반다비 체육센터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체육센터 명칭은 지난 2018년 평창 동계 패럴림픽 공식 마스코트인 ‘반다비’에서 따왔다.

반다비 체육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누구나 체육 복지를 누릴 수 있는 화합의 공간 조성을 위한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추진해왔다.

시는 1991년 건립된 후 지붕 누수 등 시설 노후화로 사용이 어려워진 옛 실내체육관을 반다비 체육센터 시설로 활용하고자 지난해 3월 전면 재보수에 착수했다.

1년여 공사를 거쳐 문을 연 반다비 체육센터는 연면적 3849㎡·지상 2층 규모로



지난 11일 나주시가 반다비 체육센터 개관식을 가졌다.

나주시 제공

사업비 30억원(도비9억원·시비21억원)이 투입됐다.

센터엔 어울림 배구 등 다양한 종목을 치를 수 있는 정식 규격의 경기장 코트와 더불어 탁구실, e스포츠실, 공용회의실, 체력단련실 등이 새롭게 들어섰다.

여기에 버튼식 자동문과 장애인 전용 승강기, 경기장 코트 벽면을 쿠션감이 좋은 운동용 매트로 설치해 장애인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했다.

화장실 또한 기존 1개소에서 3개소, 주

차 면수도 121대로 확충했다.

개관식은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경과보고, 기념·축사, 테이프 커팅식, 시설 관람, 개관 기념 어울림 좌식배구 순으로 진행됐다.

윤병태 시장, 이재남 시의회의장과 지역 도·시의원, 장애인연합회, 체육회, 생활체육동호회 등 시민 100여명이 참석해 체육 활동을 매개로 한 지역 공동체 화합의 공간이 될 반다비 체육센터 새 출발을 축하했다.

나주=김용의 기자